새로운 분위기의 9홀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27홀 개장
예약 : www.hpdynasty.co.kr 080) 320-7700

깊어가는 가을, 은륜 대향연 속으로

그린 광주·전남 자전거 축제 14일 금호패밀리랜드서 스타트

22km 로드레이스·4km 거북이행진 신청 봇물…경품도 풍성

깊어가는 가을 호남 최대의 자전거 향연이 펼쳐진다.

2009 그린 광주·전남 자전거 축제가 오는 14일 금호 패밀리랜드 주차장에서 스타트 총성을 울린다.

광주시·전남도·광주일보사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환경과 건강을 모두 지키는 녹색성장의 아이콘인 자전거 문화를 확산시키고 가족·동호인들의 친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는 22km 로드레이스와 4km 거북이행진 두 종목으로 펼쳐지며 사이클 선수와 동호인 등 1천여명이 참가해 늦가을 들판을 가로지르는 은륜의 대향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로드레이스 코스는 패밀리랜드 주차장을 출발해 용산교차로-효령삼거리-단지마을 입구-쌍교삼거리-국립 5·18묘역 진입구-국립 5·18묘역-단지마을 입구-효령삼거리-용산교차로를 거쳐 패밀리랜드 주차장으로 되돌아 오게 된다. 로드레이스 참가자는 5인 1팀으로 팀원 중 1명은 여성이나 청소년이 포함되어야 하고 MTB(바퀴사이즈 26~27인치, 바퀴 폭 1.75인치 이상, 전·후 브레이크 장착) 및 헬멧을 소지해야 한다. 또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는 참가 할 수 없다.

거북이 행진 코스는 패밀리랜드 주차장을 출발해 대야교차로-지산교차로-용전교차로-용산교차로 반환점을 돌아 패밀리랜드 주차장으로 들어오게 된다. 거북이 행진 참가자는 특별한 복장이나 장비 규정은 없지만 자전거와 헬멧을 지참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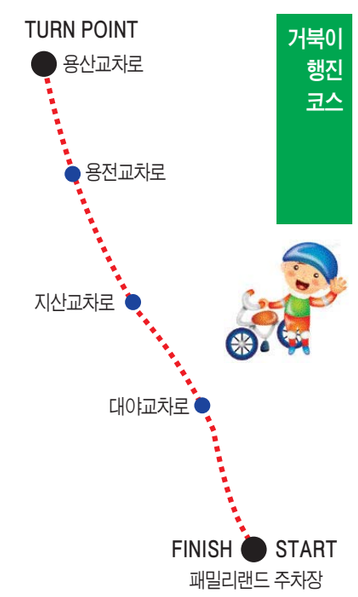
이번 대회는 다양한 경품도 마련됐다. 로드레이스 경우 단체 1위에겐 50만원, 2위 40만원, 3위 30만원, 4위 20만원, 5위 10만원의 상금이 각각 주어진다.

남자 개인 1위는 40만원, 2위 30만원, 3위 20만원, 4·5위 10만원씩 그리고 여자 개인 1위는 30만원, 2위 20만원, 3위 10만원이다. 제한시간(1시간30분) 내 완주하는 최고령 남녀에게는 상품이 지급되며 참가자 중 50명을 선정 행운상도 주어진다. 또 포토제닉상에 뽑힌 10명에게도 상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날 로드레이스는 오전 9시에, 거북이 행진은 11시에 출발한다.

특히 로드레이스 참가자는 지정된 출발지점과 골인지점을 통과해야 한다. 또 기록측정을 위해 배부 받은 기록측정용 칩을 반드시 부착해야 하고, 골인 후엔 지정된 반납처에 꼭 반납해야 한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로페즈 당신이 우리의 MVP"

KS 5차전 완봉 등 호투 불구
홈런포 나지완에 MVP 밀려
KIA팬들 십시일반 성금 모금
캐리커처 등 만들어 '러브콜'

'로페즈 당신은 우리의 MVP입니다.'

KIA 타이거즈 팬들이 용병 투수 로페즈를 위한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로페즈는 SK와의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 완봉승을 거두는 등 맹활약했지만 승부를 결정짓는 홈런 두 방을 터트린 나지완에게 밀려 MVP 트로피를 차지하지 못했다.

로페즈가 MVP에 선정되지 못해 무척 아쉬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구단 홈페이지에는 로페즈 MVP 만들기 프로젝트가 전개됐다.

팬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집해 MVP 트로피와 개인 피규어, 캐리커처 액자를 만들기로 했다.

올 시즌 좋은 모습으로 팀 우승에 일조했던 로페즈의 아쉬움을 달래고 내년에도 KIA맨으로 남아주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팬들의 정성이었다.

이렇게 해서 진행된 성금 모금에서 3일 만에 200여 만원 돈이 모아졌다.

아들과 함께 돈을 모아 보낸 아버지, 타이거즈 경기 관람 후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를 입었지만 야구 열정만은 여전한 열혈팬, 20여년 만에 본 야구경기에 큰 감동을 받아 직원을 통해 성금을 보낸 중년 남성 등 다양한 사연을 가진 이들이 프로젝트에 동참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총괄한 강현대(32)씨는 "이번 트로피 제작을 통해 정말 야구를 사랑하고 타이거즈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로페즈 선수를 위한 좋은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팬들은 의견을 모아 트로피에 'KIA 팬들이 선정한 MVP'라는 영어 문구와 로페즈의 이름을 새겼다. 캐리커처 액자도 완성됐고, 로페즈의 아이들에게 선물할 한복 두 벌도 마련됐다. 로페즈의 피규어는 아직 제작중이다.

KIA 팬들의 따뜻함 마음이 담긴 이번 선물은 외국인 선수 재계약 의사 통지 마감 시한인 오는 25일전 항공편을 통해 로페즈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양키스, 9년만에 WS 재패

마쓰이 아시아인 최초 MVP
박찬호 빛바랜 무실점 호투

뉴욕 양키스가 9년 만에 월드시리즈 정상에 섰다.

양키스는 5일(이하 한국시간) 뉴욕 브롱크스 뉴 양키스타디움에서 계속된 2009 미국프로야구 월드시리즈(7전4선승제) 6차전에서 일본인 타자 마쓰이 히데키가 선제 2점 홈런을 포함해 혼자 6타점을 올린 데 힘입어 필라델피아 필리스를 7-3으로 제압, 시리즈 전적 4승2패로 우승했다.

양키스는 2000년 뉴욕 메츠와 지하철 시리즈를 제패한 이후 9년 만에 다시 챔피언 반지를 손에 넣었고, 역대 최다인 통산 27번째 월드시리즈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최근 월드시리즈에서 애리조나(2001년), 플로리다(2003년)에 잇따라 무릎을 꿇었던 '악의 제국' 양키스는 뉴 양키스타디움으로 이사한 첫 해 우승의 감격을 맛봤다. 12년 장기 집권한 조 토레 감독의 뒤를 이은 40대 기수 조 지라디 감독은 양키스 지휘봉을 잡은 지 두 번째 시즌에 생애 처음 월드시리즈 우승 사령탑이 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리즈에서 13타수8안타(타율 0.615)와 3홈런, 8타점을 기록한 마쓰이는 일본인으로는 처음 월드시리즈 MVP에 뽑혔다.

뉴욕 양키스가 5일 필라델피아 필리스를 꺾고 9년만에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후 우승컵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2년 연속 우승에 도전했던 필라델피아는 1950년 양키스와 월드시리즈에서 4전 전패한 데 이어 59년 만의 재대결에서 또 눈물을 흘렸다.

1패 뒤 3연승하고 5차전에서 일격을 당해 3승2패로 앞서 있던 양키스는 포스트시즌 최다승에 빛나는 베테랑 좌완 앤디 페티트를 마운드에 올렸고, 필라델피아는 '외계인 투수' 페드로 마르티네스를 등판시켜 맞불을 놓았다.

한편 박찬호는 6회말 1사 1루에서 필라델피아의 네 번째 투수로 등판해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다. 박찬호는 지터와 제리 헤어스턴 주니어를 범타로 처리하고 이닝을 마친 뒤 7회말에도 올라와 테셰이라를 파울팁 삼진으로 잡아내고 로드리게스에게 좌전안타를 내준 뒤 공을 스콧 에어에게 넘겼다.

15번째 시즌 만에 처음 월드시리즈 무대를 밟은 박찬호는 2, 4, 5, 6차전에 등판해 33분의 1이닝 동안 2피안타, 3탈삼진, 1볼넷, 무실점을 남겼다. /연합뉴스